

'눈 맛' 즐기고 '차 쯤' 좋~다

12월 다화·차도구현 등 茶 관련 행사 잇달아 열려



선화가 수안 스님의 '차맛 좋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건강' 展에 전시되는 단계석 다반.



수묵화의 대가 송영방의 '초의대사 깎다도'.



서양화가 이성주의 '계산무진(溪山無盡)'.

날씨가 추워질수록 차전에는 손이 더 많이 가지지만 바깥사람들은 줄어들게 된다. 올 겨울에는 차 향기 물씬 풍기는 전시와 행사를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찾자리 그림인 다화(茶畵)와 차도구 전시, 다례(茶禮)·다우(茶舞) 공연 등 12월에 차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서울 윤갤러리(대표 윤용철)가 마련한 '3인 3색의 색깔있는 다화전(茶畵展)'이다. 12월 한 달 동안 한국화가 송영방(4~11일), 서양화가 이성주(13~20일), 선화가 수안 스님(23일~30일)의 다화를 연이어 전시한다. (02)738-1144

윤용철 대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돼 왔던 다화를 장르별로 선별해 전시하고, 다화와 어우러지는 골동품과 현대 다기, 꽃꽂이를 함께 연출함으로써 격조 있는 찾자리를 펼쳐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동국대 예술대 학장을 역임하고 산수화, 인물화, 불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펼쳐온 **수묵화의 대가 송영방 화백**은 차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풍속화 같은 다화(茶畵)를 선보인다. 개울물이 흐르는 숲속에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초의 스님을 그린 '초의대사 깎다도',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이 초당에서 만나 다담을 나누는 장면이 담긴 '다담(茶談)' 등 이야기가 담긴 다화와 매화를 소재로 한 절자와 등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서양화가 이성주는 '차연(茶緣)'을 소재로 한 다화를 내놓는다. 그림의 배경에 서화와 글씨를 도입하고 차연을 중심적인 이미지로 삼고 있다. 자칫 낯설게 느껴지는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을 통해 '비현실적'이지만 신선한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배경으로 한 '명선(茗禪)' 등의 작품에서는 추사의 글씨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격조를 느낄 수 있다.

선화가 수안 스님은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천진무구한 선화를 전시한다. 차전이나 화병, 좌선하는 스님과 어우러진 글씨가 담백한 시각적 이미지를 준다.

미술평론가 신황섭씨는 "서화는 차와 더불어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체로,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차와 상통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와 서화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의 가치를 빛내주는 상호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차문화협회 부천시지회(지회장 박경엽)가 12월 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차예술 공연'은 각종 차 예술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다례, 다악, 다무의 향연'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1부에서는 향다시연회와 자연과 어우러진 사진 전시회, 2부에서는 규방다례·어린이 효도다례·명상차와 명선다무·초의선사의 다선삼매 등 다채로운 차 공연이 마련된다.

이 밖에 진주교방거리리춤, 남도민요, 좌복놀이와 진도북춤 등도 선보이는 '종합 공연 연합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경엽 지회장은 "우리 가락, 우리 소리가 향다 공연과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032)662-4462

한편 **보이차전문매장 푸어재**(대표 황보근)는 12월 13~23일 서울 학교재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건강'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정품 보이차와 중국 광동성에서 생산되는 휘록음회암(輝綠凝灰岩)인 단계석(端溪石)으로 만든 다반(茶盤) 등이 선보인다.

황 대표는 "소장 가치가 높은 중국 명재차장의 '영청보리수묘기념차'와 '불연차(佛緣茶)'는 물론 오방색(五方色)을 두루 갖춘 단계석 다반은 차 생활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 (02)725-500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8. 정신의 음료

⑥ 송대의 민간 음다(飲茶)

송대에는 상업이 발달해 번창한 도시는 인구가 백만이 넘을 정도였다. 북송의 번영(汴京, 지금의 개봉)은 삼경(三更)이 지나도록 야시장이 열려 거리마다 많은 상인과 집꾼들, 수공업자와 관원, 문인들이 북적거렸다.

상인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고, 음주와 오락, 휴식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다방(茶房), 다사(茶肆), 다옥(茶窟)이 생겨났다. 다방, 다사, 다옥 등은 지금 중국에서 흔히 볼

꽃아 놓는 등 장식에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쓴 곳도 있었다.

특히 기생들은 전문 차집을 겸(兼)하여 영업을 하면서 차와 민간 문화 활동을 연결하기도 했다. 다방(茶房)을 들고 다니며 차를 파는 행상을 위해 차를 끓여 주었던 사람들과 다방의 차집부들(茶傭)은 차를 끓여 팔기도 했지만 흥사나 길사가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들은 동네를 왕래하면서 중매쟁이 역할과 때로는 물건을 배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일을 돕기도 했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선물하고, 이사를 온 사람은 옆집 사

다방 성행은 차가 민간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

차 대중화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 적극 이용

수 있는 다관(茶館)의 옛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다방은 단지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상거래를 하는 장소였다. 규모가 큰 다방에서 작은 곳에 이르기까지 상인들과 노인, 젊은이, 부녀자들의 오락 장소가 되어 성시를 이루었다.



송(宋) 유송년(劉松年)의 명원도시(名園勝地)의 명원도시(名園勝地)의 명원도시(名園勝地)

경지 좋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 이곳을 거닐며 달빛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선인(仙人)의 경지를 모방한 곳도 있었다.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자연관을 추구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상류 문화로 인식되었던 차가 민간의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의 한 면이다. 시끄럽고 번잡한 대중문화 속에서 교역과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매체로써 음다의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은 민간 요(窯)에까지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형태의 다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남송의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에는 크고 작은 업종의 점포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술집과 다방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사대부들의 모인 계사(契社)에서는 서화(書畵)를 걸어놓고 감상했으며, 생화(生花)를

로 하던 북방 민족들은 항상 야채가 부족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아미노산등을 공급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원 사람보다 더욱 차가 필요하였으며 그들에게 차는 생필품이었다.

송나라는 소수 민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차를 이용했으며, 더욱더 차가 귀하게 된 북방 민족은 이것을 빌미로 국경을 넘어와,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과 북방의 소수민족과 늘 싸워야 하는 중원은 '다마무역(茶馬貿易)'을 통해 군비(軍備)를 확충하고, 전제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했다.

이처럼 송대에는 대중적인 차 문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적극 이용했다.

한편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북방 민족들은 항상 야채가 부족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아미노산등을 공급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원 사람보다 더욱 차가 필요하였으며 그들에게 차는 생필품이었다.

송나라는 소수 민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차를 이용했으며, 더욱더 차가 귀하게 된 북방 민족은 이것을 빌미로 국경을 넘어와,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과 북방의 소수민족과 늘 싸워야 하는 중원은 '다마무역(茶馬貿易)'을 통해 군비(軍備)를 확충하고, 전제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했다.

이처럼 송대에는 대중적인 차 문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적극 이용했다.



日 독립영화 '독차의 맛' 개봉 독차 통한 따뜻한 가족 이야기

2003년 제작된 일본의 독립영화 '독차의 맛'이 11월 23일 서울 종로 스폰지하우스(시네코아)에서 개봉했다.

산간 마을에 사는 영동하지만 기습 따뜻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극적인 알지만 오미(五味)를 간직하고 있는 독차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시가 가즈히토 감독이 각본을 쓰고 우리에게 초남강으로 알려진 쿠사나기 츠요시, 영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 등이 출연한다. (02)2285-2090

동아시아 차문화연, 연구생 모집 2007년 1월 15일까지 우편 접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우리 전통 차문화를 연구할 제5기 연구생을 모집한다. 연구생에게는 기초과정 2년, 연구과정 3년 동안 고전강독 및 제다실습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만 35세 미만으로 우리 차 문화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통씩을 2007년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http://cafe.daum.net/dcaea>)도 가능하다. (02)504-6162

보이차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 등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만행박)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세계적 단화**

■ **방한용 탈신**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상 053)426-7300,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화진동 062)228-2870,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부산송복 02)738-8407, 제주: 김윤경송복 064)724-7999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음질, 실용,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부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길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폐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여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저수 대진 입장